관세 쇼크와 AI 비관론, 미 증시 일제히 하락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 yunjeong.kim@ls-sec.co.kr

불확실성 확대에 나타난 안전자산 선호

- 미 증시는 DOW -1.66% S&P500 -1.04% NASDAQ -1.13% 금융, 임의소비재, 기술주 중심 하락
- 관세판결 역풍에 지정학 불확실성, AI 발 우려 이어지며 불안심리 확산, 안전자산 선호심리. VIX +11.4%, 금 +3.3%, 은 +6.9%
- 1월 FOMC에서 인하 지지한 월러 연준이사는 1월과 같은 고용상황이 지속될 경우 금리 동결로 입장 변경 시사. 다만, 국채시장은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강세 10Y 4.03%(-1.4%), 2Y 3.44%(-1.2%)

트럼프 대통령이 자극한 불확실성 ①지정학 ②관세정책

-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참모진에 유사시 이란 정권교체 목표의 대규모 군사행동을 검토하겠다는 발언 보도로 지정학 불확실성 확대. 24일 트럼프 대국민 연설, 26일 이란과 핵협상 재개 등 향후 일정에 귀추
- 관세 위헌 판결 이후 EU, 인도 등은 무역협상 연기하며 외교 불확실성↑. 트럼프 무역합의 흔들시 더 높은 관세 경고
- 트럼프 관세기조 유지의지 피력. 즉각 발효한 122조 기반 글로벌관세 15%(150일 시한) 외에도 232조(품목별), 301조(불공정) 대응 준비. 다만 글로벌관세 만료시한 내 준비가능여부 불확실

AI 혁신의 기존 산업 타격 우려도 확산

- 앤트로픽 클로드의 새 기능 클로드코드가 IBM 등 S/W 산업의 주 수입원 위협, 관련 밸류체인 약세 유발
- 시트리니리서치는 AI 혁신으로 기업 및 소비시장으로 AI 에이전트의 광범위한 도입에 따른 2년 내 실업률 두배, 증시 35% 이상 하락 등 비관적 전망 제시. 이는 AI 확산에 따른 생산성 향상 기대감과 배치되는 전망이자, 최근 불거진 AI 우려를 지지하는 전망
- 다만 S/W 수익성 및 고용대체 우려에도 불구, AI 데이터센터와 전력인프라 수요 여전히 견조. 25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발표가 분위기 반전시킬지 여부 귀추

특징주: 앤트로픽發 기존 S/W주 비즈니스 우려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IBM	IBM	-13.2%	앤트로픽이 대규모 컨설팅 인력을 대체해 COBOL 시스템 현대화 작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AI 툴 발표.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동사는 핵심 비즈니스 모델 훼손 우려 부각되며 장중 주가 급락
AMZN	아마존	-2.3%	루이지애나에 $12B 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고 발표. 공격적인 CAPEX 확대에 따른 수익성 저하 우려 부각되며 주가 하락
NVO	노보노디스크	-16.4%	차세대 비만치료제 임상 결과가 일라이릴리(+4.9%) 대비 부진함에 주가 급락
KKR	KKR	-8.9%	행동주의펀드들의 블루아울 대출펀드 공개 매수 계획 발표에 섹터 전반 센티 악화
DPZ	도미노피자	+7.5%	호실적에 주가 상승. 경제 양극화 지속되는 가운데 가성비 전략이 성공한 영향. 분기 배당 15% 이상 인상 소식도 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
UAL	유나이티드항공	-5.2%	미 동부 폭설로 인한 수천 편의 항공편 결항 사태로 항공주 일제히 하락